

# 불교계 광복 68돌 맞아 평화를 말하다

## 한반도평화공동체 남북불교 동시법회

8월 15일 광복 68주년을 맞아 전국 각지에는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부산에서는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기원하는 '한반도 평화공동체'가 아시아 최대 수송항 독도함선상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반도평화공동체조직위원회(위원장 수불)가 주최하고 부산불교연합회, 부산불교연합신도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광복 68주년 및 정전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불교계가 중심이 된 한반도 평화공동체조직위원회는 광복 68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공동체를 개최했다. 사진은 독도함에서 풍등을 날리는 모습.

한반도평화공동체조직위원회는 "부산 해운대 앞바다 독도함 선상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기원 국가와 민족, 인종, 사상, 종교를 초월하여 전쟁으로 고통 받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자리"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대화장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특별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을 비롯 정호섭 해군작전사령관과 재부기관장, 기독교, 원불교, 천도교 등 종교계 대표와 다문화가정, 독립유공자, 6.25참전용사, 재부보훈단체장과 보훈유가족 등 각계 시민대표 3000여명이 함께했다.

진각종 부산교구청장 효원정사는 개회사를 통해 "한반도평화공동체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아울러 향후 개최될 9.27한반도 평화대회의 성공개최와 고려 팔관회의 호

바다와 산, 들녘과 냇물까지 두루 비쳐 원한과 갈등을 녹이고 화해와 상생으로 이 나라와 세계를 아름답고 평화롭게 장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의 평화의 불이 운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개회,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봉행사, 이종종교인과 기관장들의 헌화, 추도사, 평화기원사, 대회장인사, 풍등올리기, 기념공연을 모두 마치고 귀향했다.

한편, 남북 불교도들이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염원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광복 68주년을 맞아 815남북불교도 동시법회가 서울 봉은사와 평양 광범사에서 각각 봉행됐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족본, 본부장 지홍)는 8월 15일 '조국통일 기원 8.15 남북불교도 동시법회'를 봉은사 법당에서 봉행하고 남북공동발원문을 발표했다. 북측 역시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위원장 강수린)가 평양 광범사에서 동시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민족본 지홍 스님, 사회부장 범광 스님, 자성과 색신 결사추진본부 종훈 스님, 교육부장 범인 스님,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 박지원 민주당 국회의원,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남북위원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남북불교는 법회에서 공동발원문을 발표하고 자타불이와 화해, 화합, 평화와 평등 정신을 바탕으로 통일조국을 이룰 것을 다짐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정혜숙 기자

### 해운대 독도함서 풍등 띄워 평화 기원

### 남북은사-北광범사 공동발원문 발표

국정신을 계승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직위원장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대회를 통해 "호호탕탕한 부산 앞바다에 부산시민의 평화 의지를 결집한 풍등을 띄움으로써 종교의 평화적 역할에 깊이 성찰하고, 한반도의 찬란한 미래상과 인류의 평화와 상생을 기원하기 위함"이라며 "국

가 안보가 최우선적인 국민복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호국의지를 드날리기 위해 부산아시아대경기장에서 개최되는 9.27한반도평화대회의 거국적인 기도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반도평화대회 수석부위원장 지원 스님은 평화기원사에서 "독도함에서 울리는 이 소망의 등불이 하늘 높이 솟아올라 온

## 진각종 제1회 청소년 신라역사캠프

13~16일 경주서 초·중·고생 600명 대상

### '안이비설신' 프로그램 눈길

초·중·고교생 청소년들이 천년고도 경주일대에서 전통문화유산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각종(통리원장 회정 정사)은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두 차례 초·중·고교생 청소년 600여 명을 대상으로 위덕대학교와 흥심심인당 등 경주일원에서 '청소년 인성프로그램-신라역사캠프'를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삼국을 통일로 이끌었던 신라의 중심인 경주지역을 탐방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부족한 역사인식을 심어주고, 신라의 화랑정신과 한국불교의 특징인 호국불교 및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각종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고 바른 인성을 유도하며 인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意)·육감(六感)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청소년들은 육감 중 '안'에서는 신라인의 지혜와 호국불교의 정신을 눈으로 확인하고 탐방하는 경주남산 탐방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에서는 '화랑난타'를 통해 화랑도 소품을 만들어 역할극에 참여하며 타악연주를 관람했다. '비'에서는 신라문화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의 대표적 전통문화이자 불교문화인 전통 향 제작기법체험과 명상체험도 함께 했으며 '설'에서는 사찰음식체험을 통해 생생사랑과 환경보호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청소년들은 또 '신'에서 스킨십 및 조별 팀워크 강화시간을 가졌으며 '의'에서는 '나를 깨닫고 인연을 깨닫다'란 주제로 진각종의 수행인 육자언인 율마니반떼춤 삼일수행과 명상 등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동시에 전통문화의 하나인 풍등을 직접 제작해 자신의 소원을 담아 날리는 체험을 하기도 했다.

김주일 기자



진각종은 8월 13~16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신라역사캠프를 개최했다. 사진은 '안이비설신' 프로그램중 화랑도 체험을 하고있는 참가학생들

##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 개강

민추본, 21일까지 수강생 모집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추본, 본부장 지홍)가 '1기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을 마련한다.

교육프로그램 내용은 △1강: 8월 22일(목) 동북아 질서재편과 한반도 정체(이남주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2강: 8월 28일(수) 남북관계와 한반도 신외교정책(이봉조 도산통일연구소장, 전 통일부 차관) △3강: 9월 4일(수) 김정은 시대의 북한에 대한 이해-북한발전에 대한 인식과 접근(정창현 국민대 교양학부 교수) △4강: 9월 10일(화) 북한불교 이해와 남북불교교류의 과제(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수업은 매주 6시 30분~8시 진행되며 교육장소는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교육실이다. 모집마감은 8월 21일까지다.

정혜숙 기자 bjwjs@hyunbul.com

## 10년 대작불사 천태종 중앙박물관 문 연다

천태종 10년 대작 불사인 불교천태중앙박물관이 위용을 드러냈다. 천태종은 8월 24일 오후 7시 30분 단양 구인사 입구에 위치한 불교천태중앙박물관 앞 특설무대에서 개관 기념 천태예술제, 25일 오전 10시 30분에는 개관식을 연다.

불교천태중앙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다. 건축면적은 3,207㎡(970평), 연면적은 8,254㎡(2,497평)이다. 박물관 지하는 주차장과 기계실 등이, 1층은 △제1·2 수장고 △천태중앙컨벤션홀 △안내테스크 △조정실 △향온향습실 △뮤지엄 샵 △하역장, 2층은 △관장실 △학예연구실 △보존처리실 △북카페 △제3수장고 △휴게실 △향온향습실, 3층은 △불교문화 상설전시관 △천태종 역사문화전시관 △체험학습장, 4층은 천태중앙도서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원로 서지학자 천혜봉 선생이 기증한 자료를 모아 놓은 서지정보실이 눈길을 끈다. 박물관장 보광 스님은 "천혜봉 선생

이 2차례에 걸쳐 자신이 갖고 있던 자료를 기증했다.

자신의 자료가 한군데 모여 있길 원했고, 학계나 단체에 기증하는 것보다 천태종이 자신의 뜻을 완성해 주리라 믿고 기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 24일 기념예술제, 25일 개관식

### 8천여㎡ 면적, 지상 4층 규모

### 국보·보물 등 수천 점 소장

### 서지학자 천혜봉 전시관도

불교천태중앙박물관은 △천태종 역사체계적 정리 △천태종 관련 자료 수집·보존·전시·연구 △애국·생활·대중불교를 표방한 새 불교신앙으로서의 천태불교의 대중화 △천태종 관련 역사·학술적 자료 전시 통한 학술적 연구 편의 제공 △국

제 불교문화권과의 교류 △수장품 효율적으로 보존·전시 △불교전문박물관으로서 불교문화의 전승·발전 기여 △대중 참여 문화시설로서 지역문화 발전 및 관광 활성화 기여 등을 목적으로 건립됐다.

불교천태중앙박물관은 국보와 보물, 지방유형문화재를 비롯해 수천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주요 문화재로는 국보257호 조조본(대방광불화엄경)주본 권제29, 국보 279호 조조본(대방광불화엄경)주본 권제74, 보물 1013호 <대방광불화엄경소> 권68, 보물 1162호 <묘법연화경삼매참법> 권하, 보물 1714호 백지금니법망보살계경 등 보물 10점이 있다. 또 금동구수상(충북 유형문화재 제209호), 아미타화상(충북 유형문화재 제210호), 청자소문발우(충북유형문화재 제211호) 등 전적, 탱화 등 31점의 충청북도 유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 동국대 BK21플러스 사업서 5개 선정

국문, 반도체, 멀티미디어, 식품생명, 약학 등

동국대(총장 김희욱)가 8월 16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BK21플러스 사업서 인문사회분야 1개와 과학기술분야 4개 등 총 5개 분야가 선정돼 8억 4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선정된 동국대 연구팀은 △인문사회: 국어국문학과 황종연 교수(한국적 모더니티 형성에서의 전승과 변역 교육 연구) △기초과학: 반도체과학과 임현식 교수(신기능 이미징 반도체 나노구조물 소자 및 응용 연구) △응용과학: 멀티미디어공학과 이광근 교수(미래기반 식품산업 Smart 인력양성사업) △약학과 이창훈 (레졸레 오믹스 기반 미래 혁신신약연구 인력양성

사업) 등이다. 동국대 관계자는 "2006년 BK21 사업에서는 불교학 및 반도체 등 2개팀이 선정됐지만 올해에는 인문사회와 기초, 응용과학 분야 등서 5개팀이 선정돼 약 2.5배가 넘는 성장을 나타냈다"며 "사업분야 역시 동국대가 의욕적으로 준비해온 약학, 멀티미디어공학, 반도체공학, 식품생명공학 등 정보통신(IT)과 바이오(BT)분야가 골고루 분포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BK21플러스사업은 교육부가 2013~2019년 진행하는 연구지원사업으로 매년 과학기술분야 1만 만5700명, 인문사회분야 2800명 등 석박사급 장외인재 1만8500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주일 기자



## 학업 (수능) · 취업성취 100일기도

“관봉 석조여래좌상(갯바위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드리면 누구나 한가지 소원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선본사에서 12가지 큰 자비를 항상 행하시어 만 중생을 두루 구제하여 해탈케 하시는 갯바위 약사여래부처님전에서 학업(수능), 취업성취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약사경>에 이르기를 12가지대원중 세번째가 “중생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불자님들께서는 학업성취(수능)100일 기도에 두루 동참하시어 원하는 바를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입재 2557(2013)년 7월 31일 (음 6월 24일 오전 10시) / 회향 2557(2013)년 11월 7일 (음 10월 5일 오전 8시) / 동참금 10만원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밤 10시 ~ 3시
- 장소: 갯바위 약사여래부처님전(우천시 유리광전)
- 집전: 1,3,5주:선본사 대중스님, 둘째 넷째주:성마스님

※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분께는 약사여래불 인장을 찍어 드립니다.

**범종불사 타종식**

- 1인 1구좌 30만원 / ● 설판 시주 100만원
- 일시: 9월 3일 오전 10시 화요일입니다.

**소원(학업)성취등**

- 2013년 계사년 소원(학업)성취 등을 밝히고 대학 합격하세요.
- 일시: 013년 양력 9월 24일 ~ 1월 1일까지
- 문의: 선본사 갯바위 053) 851-1868,9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선본사 갯바위**

기도동참 계좌번호: 대구은행 179-04-060280-001 (대한불교조계종 선본사)

문의 ☎ 053)851-1868, 851-1869, 853-9877

불사동참 계좌번호: 농협 351-0399-5622-13 (대한불교조계종 선본사)

